

제안명: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문

의안 번호	17
----------	----

발의년월일 : 1998년 7월 29일

발 의 자 : 배종범의원외 20인

1. 주 문

- 지난 '98. 2. 18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함에 있어 우리 서남권과 전남지역의 결핵환자치료의 중요성과 그 특수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 근절되지 않는 결핵을 하루 속히 퇴치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보건정책에 배치되므로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 4월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된 후 그동안 수많은 결핵환자를 치료하여 주민보건향상과 국민건강 편익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매일 280명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연 7만명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입원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전국 43만 결핵환자중 서남권 및 전라남도 지역의 결핵환자가 약 7만명으로 영세한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환자가 많고 대부분 영세성과 장기입원 진료해야하는 등 입장을 고려할때 경제적 부담증가로 인한 입원기피등으로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 만약 민간위탁시 결핵환자의 의료보험수가(본인부담 월1만원)가 너무 낮아경영 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진료 과목 개설시 결핵환자 치료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결핵사업 특성상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만약 수탁자의 부실운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가 우려되므로
-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에 따른 철회 건의문

국립목포결핵병원은 1962. 4월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된 후 그 동안 서남권 지역과 전남지역의 수많은 결핵 환자를 치료하여 명실상부하게 주민보건향상과 국민건강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립목포결핵병원과 마산결핵병원 두곳중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에 위탁하여 경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이 지역의 결핵환자 실태를 볼때 매일 280명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연 7만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입원환자가 매년 증가 추세로서

전국 43만 결핵환자중 서남권 및 전라남도 지역의 결핵환자가 약 7만명으로 영세한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환자가 많고 대부분 영세성과 장기 입원 진료해야하는 등 입장을 고려할때 경제적 부담증가로 인한 입원기피등으로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민간위탁시 결핵환자의 의료보험 수가(본인부담 월1만원)가 너무 낮아 경영수지개선의 일환으로 일반진료 과목 개설시 결핵환자 치료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시책과는 모순이 아닐수 없으며, 복지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점을 감안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핵사업 특성상 유독 국립목포결핵병원만 민간위탁하는 것은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만약 수탁자의 부실운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경우 책임소재가 우려되므로, 국립목포결핵병원이 계속 존치되어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결정을 철회하여 주실것을 26만시민을 비롯하여 서남권지역 주민과 전남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1998. 7. 30.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